



점·선·면으로 보는
문화기획자의 성장

성장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모양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높은 지점을 향해 솟구치는 직선이다.

물체로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는 계단일 것이다.

그러나 문화기획자의 성장을 표현하기에 이 형태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자유롭고 창조적인 움직임은

직선보다는 유연한 곡선이 어울린다.

문화기획이라는 일을 통해 달고 싶은 건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취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이야기를 건네고 싶은 타인이기에,

위가 아니라 손을 뻗듯 옆을 향한다.

문화기획은 나의 세계에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이다.

초대를 위해 정성스럽게 단어를 골라 초대장을 만들고,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나의 세계를 즐길 수 있게

부지런히 의자를 꺼내 놓는 일이다.

나의 세계라는 공간이 넓어서 의자를 많이 꺼내 놓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자를 꺼내 놓기 위해 공간을 넓히는 마음으로 문화기획자는 성장한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옆을 향해 넓어지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런 성장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은 점, 선, 면이라는 요소를 다룬다.
구성 요소의 가장 작은 단위인 점이 선이 되고, 선은 면이 되며
점차 존재를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기획자가 성장하는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점, 선, 면은 순차적인 성장 단계별 이름으로 사용된다.

각 요소가 가진 회화적인 특징과 느낌을 문화기획자의 성장과 연결해서 볼 것이다.
문화기획자의 성장은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기에 성장의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한편으로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삶의 모든 순간이 가치있다고 할지라도,
삶의 방향과 의미를 결정짓는 보다 특별한 순간이 있다.
각 단계가 그 순간을 사진 찍듯 순간 포착해서 극대화 한 장면이라고 이해한다면,
성장의 여정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어렵지 않게 합류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점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화가 칸딘스키는 점은 그림을 그리는 봇이나 펜이
어떤 화면에 부딪힘으로써 생겨난다고,
최초로 부딪힘으로써 화면이 잉태된다고 말했다.

문화기획자로서 시작인 점 단계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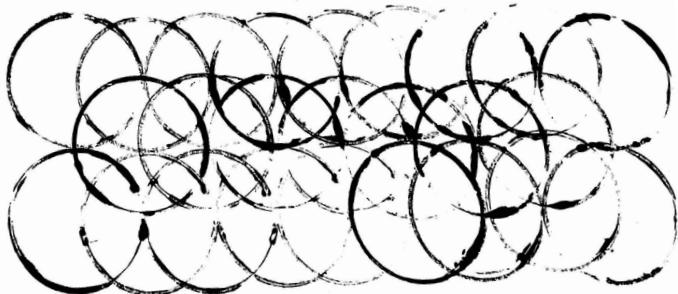
라고 말할 수 있다.

붓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물감이 고여 있다고 해도
붓이 어떤 화면에도 부딪히지 않는 상태일 때
그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붓이 화면에 부딪히는 순간부터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잉태되기 시작한다.

나라는 사람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문화라는 판에

‘쿵’



하고 부딪히는 그 순간이
바로 문화기획자로서의 존재가 잉태되는 것이다.

완성된 그림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림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는 상태.

문화기획자라고 말할 순 없지만
문화기획자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는 상태.
탄생보다는 잉태에 가까운 이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문화기획자의 시작인
점 단계로 보기로 했다.

부딪힘은 문화라는 판과 내가 만나는 그 순간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
점 단계가 겪어야 하는 숙명을 암시한다.

바로 현실이라는 세계와
내 안에 갖고 있는 이상이라는 세계의 충돌이다.



이상을 좋아 나아가고 싶지만
현실의 중력은 무겁게
나를
짓누른다

화면 속 가만히 존재하는 점을 보라.

점은 화면을 뚫고 나온다.

점은 자신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가만히 보여준다.





점은 멈춰있지만 살아있다.
움직이지 않지만 힘이 있다.

점의 여정

점 단계에서 성장하는 여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충돌

문화라는 판과 나라는 사람이
최초로 부딪히는 경험을 하는 단계



탐색

여전히 문화라는 판은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꼈던 재미와
몰입을 기억하며 이 판에
좀 더 밭을 들여보기로 마음을 먹는 단계



몰입

문화라는 판 속에서 자신의 흥미와
고민을 따라 무언가를 만들어보며
그 어디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재미와
깊은 몰입감을 느끼는 단계



충돌

문화라는 판과 나라는 점이 충돌하다

문화라는 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단계이다.
이 판이 자신의 일상은 물론 자신의 취향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점을 보게 되며 이 판에 대한 매력과 흥미를 느낀다.
이 흥미를 가지고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문화라는 거대한 판 속에서 마치 점처럼 작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도 하다.

“책 <백석의 맛>을 우연히 읽고
음식이 영혼을 위로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되면서
이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음식으로 위로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어요.”

“취업 준비를 하며 한창 방황하다가
부산국제영화제 자원봉사를 하게 됐어요.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은 목표를 갖고
이렇게 재미있게 일을 만들어가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비슷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는 문화기획이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몰입

깊은 몰입감이 주는
재미에 눈을 뜨다

우연한 계기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고민, 흥미를 연결해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경험을 한다. 이 경험을 통해 지금껏 느껴본 적 없던
몰입감과 재미라는 새로운 감각을 알게 된다.

몰입과 재미라는 강렬한 감각은
마치 첫사랑처럼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일로써 지속할 수 있을지, 먹고 살 수 있을지
현실적인 고민이 좀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을 주저하게 한다.

“기획자의 집에 참여하면서 다른 참여자분들도 보고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했어요.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소속감을 느끼며 일할까도 고민해봤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 보여요.”

“부산의 한 인력개발센터에서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을 들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취업준비생이지만 뭐라도 우리끼리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취업준비생이니 우리를 위한 영화제를 만들어보기로 하고 함께 촬영생 영화제를 만들었어요.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탐색

이 판을 조금 더
탐색해보기로 마음을 먹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내가 이곳에서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용기를 가지고 이 판을
조금 더 탐색해보기로 마음을 먹는 단계이다.
탐색하는 시간을 통해 이 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판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된다.
조금 더 가보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이 마음을 지지해주며 자신의 상황과 고민을 해석해 줄 관계와
실제적인 경험을 필요로 한다.

“제 것을 찾고 싶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부산의 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타지역으로
많이 가지만, 저는 저의 지역에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살기 위해 고민하고 있어요.
나의 고민과 전공을 접목시킬 주제를 찾고 있는데
구체화하기가 어려워요.
사춘기처럼 방황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문화기획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제 주변의 친구 대부분은 이쪽으로 오지
않아요. 문화기획자로서의 길이 불분명하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토익 시험을 치거나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거 있는데 올래?’하고 부른
그 친구들은 계속 활동해요.
선배라고 표현하는 게 어울리진 않지만,
누군가 계속 현장으로 호명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점의 방백





¶¶

문화기획이라는 게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인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일을 계속하고 싶기는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돼요.

¶¶

55

내가 잘하고 있나 싶을 때가 많아요.
일도 처음이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처음이에요.
'지금 이 상태가 성장인가?' 싶고요.
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들어요.

55

나는 나의 자리에 가만히 분명하게 존재한다
비록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나조차도 다 모르기에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나의 존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문화라는 판의 끝은 어디일까
끝이 보이지 않는 우주처럼 느껴진다

누구도 전체를 다 알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무한(無限)

나에겐 어느 방향으로든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360도

모든 방향이 나를 향해 열려 있다는 걸 안다

모든 방향이 열려 있지만

때때로 나는 모든 방향을 향해
닫힌 것만 같은 막막함을 느낀다

가능성은 언제나 나의 존재보다도 커서 나를 압도한다

¶¶

자립해서 스스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야 하지만,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어떤 경비나 지원금 없이는
지속하기가 힘들더라고요.

¶¶

ffff

문화기획의 일거리가 프로젝트 형태로 이뤄지다 보니까
지속가능함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나만의 특별함, 나만의 어떤 잘하는 것, 나만의 기획
이런 게 있어야지만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찾아지지 않으니까 이 일을 내가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ffff

날카로운 반짝임 없이도 빛날 수 있을까
빛이 나지 않는 점을 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일상의 불안에 나의 존재가 나풀댄다

나도 모르는 나의 가능성 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
혀끝에 맴도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말이라는 형태로 꺼낼 수 있게 하는
언어를 아직 배우지 못했다

점의 시간

그림의 점은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 않은 것 처럼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할 때, 점은 검은 샘이 된다.
점이라는 우물 속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응축되고 있다.

점에서 선이 되기 위하여

열망, 에너지, 욕구가
찰랑, 찰랑, 찰랑

차오르고 있다.

열망

열망은 아직 불이 붙지 않은 불씨다.

만들고 싶은 무언가
해결하고 싶은 무언가
갈증을 느끼는 무언가를
또렷하게 알게 될 때
이 열망이라는 불씨에 불이 붙는다.

결핍



결핍은 어딘가에 구멍이 있음을 알았을 때 느끼는 감각이다.

현실 속에서의 기회는 언제나 부족하다는 것,
차오르는 열망처럼 해내기엔 아직 역량이 모자란다는 것,
반짝거리는 특별함이 내게는 아직 없다는 것.

그러나 그 구멍을 숨기기보단 인정해버릴 때,
결핍은 열망이라는 불씨를 정확히 찾아간다.
그 길은 무언가를 해내겠다는 심지(心志)라는 이름의 선이 된다.

에너지

에너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다.

크고 작은 모든 경험을 통해 성취한 만족감과
기쁨과 같은 내면의 에너지이자,
경험을 통해 쌓은 경험치 곧 어떤 일을
수행해 낼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동료



동료는 옆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나란히 놓여 있는 나와 같은 또 다른 점이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 안의 불안이 조금은 잠잠해진다.
불안이 목소리를 낮추면,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에너지가 고개를 듈다.

나는 또 다른 점에게 손을 뻗는다.
뻗은 나의 손을 또 다른 점이 맞잡는다.

서로가 갖고 있는 에너지로 함께
시도하고, 부딪히고, 만들고, 울고, 웃는다.
선은 점이 점과 동료로서 연결된 모양이다.

욕구

욕구는 미래에 내가 얻고 싶은 결과다.

타인에게 받는 인정,
나 자신의 만족,
흥분이 넘치는 재미,
안정감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혹은 이 모든 것이 아닌 자신만의 그 어떤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자신만이 대답할 수 있다.

기회



기회는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해 필요한 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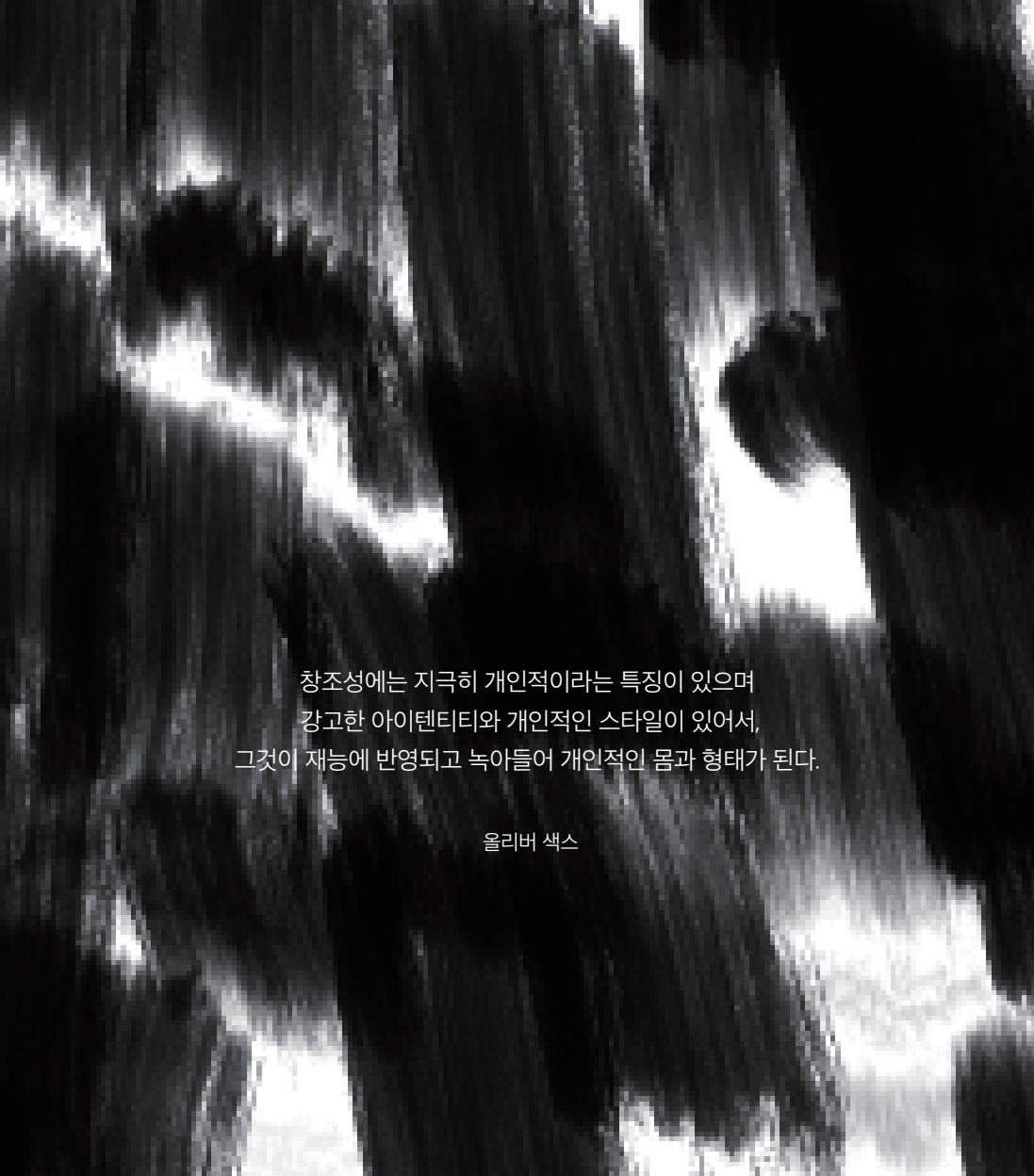
이 문은 나의 의지만으로 만들 수 없다.
우연인지 행운인지 알지 못한 채, 어느 날 우뚝 내 앞에 서 있는
이 기회가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인지
나를 가로막는 벽인지 부딪혀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아직 부딪혀 본 적 없어서
다쳐보지 않아서 순수하고 용감한 욕구가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소리를 높여 외친다.
열리지 않으면 뚫기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기회를 향해 달려 나가며 돌파한 그 자국이 선처럼 남고

점은 비로소 선이 된다.

**선은 꾸준히 자신만의
경험의 점을 찍어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흔적이자
응축 되었던 무언가가
마침내 어떤 방향을 향해
떨어져 나온 결과물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열망과 경험은 지극히 자신의 고유한 것이어서
창조된 결과물의 내용과 형태 또한 자신만의 고유한 스타일
즉, 고유한 선을 띠고 있다.



창조성에는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강고한 아이덴티티와 개인적인 스타일이 있어서,
그것이 재능에 반영되고 녹아들어 개인적인 몸과 형태가 된다.

올리버 색스

점과 선을 가르는 것은 탁월함이나 역량이 아니다.
다만 꾸준한 움직임이 만든 축적의 양이다.

축적은 내적, 외적 변화를 만든다.

꾸준함은 내적으로 버티는 정신적 근력을 키우고,
움직임은 뻗어나갈 수 있는 관계력을 만든다.
고요하고 뭉근하게 이루어지는 축적으로 존재는 변신한다.



변화의 찰나는 너무도 미묘해
그 시작을 정확히 알아차릴 수는 없지만
변화했다는 사실만은
어느 순간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반드시 알아차려진다.



이제 변화된 존재로서
고유한 주체로서
새로운 선상에 서 있다는 것을.

선의 여정

선 단계가 성장하는 여정에서는
창조, 한계, 초월의 과정을 경험한다



창조

자신만의 스타일로 무언가를 창조하며
문화기획자로서의 방향성을 만드는 단계



초월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경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한계를 넘어
선을 넘는 감각을 익히는 단계



한계

경험을 축적하며 알게 된
현실적인 한계, 직업적인 한계를
직면하며 내적 한계를 느끼게 되는 단계



창조

창조적인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다

꾸준히 경험을 이어가며 쌓은 역량과 자원을 통해
마침내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단계다.
이때 생긴 자신만의 스타일은 앞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된다.
이 창조적인 움직임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문화기획자로 인정하고
사람들에게도 한 명의 고유한 문화기획자로서 인지되기 시작하며
존재감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부산에 대안적인 인디 음악 문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인디 음악의 정신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대안적인 문화 행동이니까 내 음악은 내가 만들고, 내 음악에 대한 기획도 내가 한다는 인디적인 마인드를 갖고 일단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절박하게 필요했지만, 누구도 만들어줄 수 없고, 기획해 줄 수 없으니 그냥 내가 내 것을 만들자는 것 뿐이었죠. 그때부터 저 스스로가 문화기획자라는 생각을 했고, 사람들에게도 문화기획자로 불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남들처럼 일을 똑같이 하는 건데 이걸 굳이 문화기획자라고 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 주민들과 부대끼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은 이 사람들의 일상을 기획하는 일이고, 나는 일상기획자라는 생각을 해요.”



한계

환경적 한계, 직업적 한계, 내적 한계를 직면하다

축적된 경험을 통해 여러 한계를 직면한다.

문화기획적 자원이나 관계가 척박한 부산이라는 환경적 한계,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정의할 수도 없는 문화기획자의 모호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직업적 한계,

무엇보다 이런 한계 속에서 버티며 내적으로 한계를 느끼게 되는 단계다.

“무슨 일을 하냐고 질문을 받으면
‘문화 기획자’라고 답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기 시작하면 한도 끌도 없고
또 실제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문화기획자는 너무 다양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닙니다. 회사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일이 결국 많이 보고 느껴야 되는데요.
부산에서는 그런 감각이나 시각이
충분히 키워지긴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국 어딘가에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온몸을 던져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정보력이라든지, 행사가 진행되는 기획력이라든지
어떤 마감이라든지 당장 서울과 부산의 격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다 서울로 가는 거잖아요.”



초월

한계선,
경계선을 넘나들며 초월하다.

한계를 통해 꿈에 그려왔던 이상과 환상이
현실에 없음을 또렷하게 깨닫는다.
이 쌍싸름한 깨달음은 오히려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자유가 된다.
경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환경을, 한계라고 느꼈던 현실을
초월하는 선을 넘는 감각을 익힌다.

“저를 기획해줄 수 있는, 키워줄 수 있는, 윤색하게
해줄 수 있는 문화기획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진 않았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가 저를 찾아주길 바랬는데
아직까지도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죠.
근데 제가 기획자잖아요.
번듯한 곳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네 길바닥에서
뭔가를 하더라도 그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진짜 기획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그 프로젝트를 위해 리서치해보니 학술적으로
대안과 담론이 이미 충분히 많더라고요.
들었던 생각이 ‘그런데 왜 현실은 이 모양이지?
현실과 이론 사이의 이 갭 차이는 뭐지?’ 싶었죠.
이 시도(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결과와 반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선의 방백





呵呵

조직에 몸을 담고 있기에 제가 기획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
사실상 거의 없을 때가 많아요. 의견을 많이 낼 수는 있지만
성사되기가 힘들죠. 내가 행정을 하는 사람인지,
기획을 하는 사람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넘쳐서 이름을 날리는 문화기획자가 되어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안정적인 상황에서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한다는 것에만 만족하는 게
최선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呵呵

엮

아웃풋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까,
좋은 인풋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실무를 하다 보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고립적 정보들만 계속 쓰고
새로운 인풋을 못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사실상 문화 소외 계층은 우리라고 하기도 해요.

엮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삐뚤빼뚤

들쑥날쑥

울퉁불퉁

이런 모양의 길도 길이라고 우겨보다 이내 지치는 마음이 듈다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야 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 도착할까
버틴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달팽이 집 무게를 등에 업고 나아간다
흐릿한 이 흔적도 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

ㄏㄏ

기획은 제가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동료들과 함께 만드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요.
그래도 사업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주는 인사, 격려, 만남이 주는 기쁨
들이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박수를 받을 때처럼 해방감을 주죠.
마찬가지로 과정에서 관계적인 갈등이 일어나거나
오히려 이 사업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걸 볼 때 가장 슬픕니다.

㋡

公共文化

문화기획자는 자기 일을 좋아하고, 몰입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일에 대한 사회적으로 제대로된 인정이 없으니

다른 그 어떤 직업보다도 자기만족으로 일한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론 늙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도 굳어져 가고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겠냐는 생각도 들죠.

그러다가도 또 짜증 나는 순간이 일하다 보면 재미있어서 막 집중해서 해요.

그 재미를 느끼는 내가 싫어졌다가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문화기획자

呵呵

지금까지 이 일은 한 이유요?

결론은 좋아서죠. 마음에서 끓어 오르는데 불을 끌 수가 없더라고요.

돌고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여기에 온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고, 좋아서.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呵呵

부지런히 꺼내 놓은 의자에 사람들이 앉는다
의자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보인다
사람들을 따라 나도 웃고, 울고, 징그린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좋아서
이 일은 좋은데 싫고, 싫은데 좋다

그 두 대답을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다 문득 짜증이 난다
좋아서 짜증이 나고, 싫어서 짜증이 난다
결국엔 좋아하는 마음이 늘 간발의 차로 이긴다

할 수 없지. 그렇게 한 걸음 더 가는 수밖에

선의 시간

돌파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 모습은 아마도 ‘선’의 형태일 것이다.
하얀 중력을 뚫으며 선은 앞으로 나아간다. 돌파한다.

돌파는 가만히 앉아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부딪힐 걸 알면서도 달려 나갈 수 있는 동기가 있을 때
돌파할 때 생기는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을 때
무엇보다 결국에는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돌파하는 선이
탄생한다.

질문

질문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내 옆의 사람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스스로 묻는 물음이다.

그 질문에 삶으로 답하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동기가 되어준다.

철학



철학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신념이다.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이 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지 않은지에 대한
나만의 기준의 선이 짙어지고 명확해진다.

질문에 답하며,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 나가며
명확해진 나만의 철학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며
새로운 국면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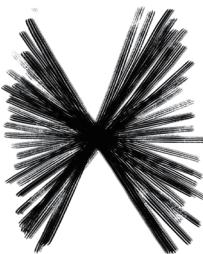
감각

감각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자 지혜다.

크고 작은 선을 넘는 경험을 통해
돌파는 원래 충격이 있다는 것
충격이 있더라도 견딜만하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때 견디는 힘,
돌파하는 힘,
버티는 힘을 키우고 돌파의 감각이 체화된다.

시야



시야는 세계에 대해 새롭게 지각하는 감각이다.

시야는 이 거대한 세계 속에
존재감은 작지만 가능성 있는 점
희미하지만 생명력 있는 선이 존재함을 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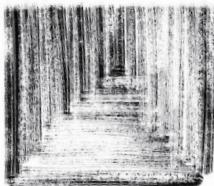
무엇보다 그들이 공존해야 세계라고 부를 수 있는
전체로서 온전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캔버스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지지

지지는 돌파를 만드는 사람에게 보내는 응원이자,
철학에 대한 공감의 표현이자, 돌파를 만드는 힘이다.

돌파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돌파가 의미 없을 것이라는 의심은 돌파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다.
이 목소리를 무시하고 다시 달려가게 하는 것은 더 큰 목소리로
나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내 옆의 사람들, 동료들이다.

역할



역할은 형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자, 자리다.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야와 변화를 위한 철학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선은 선의 형태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노력만으로는 선이 면이 될 수 없다.
정서적 지지 차원을 넘어, 물리적인 공간과
실제적인 역할이 주어질 때

선은 비로소 면이 된다.

면은 판이다.
점도, 선도, 그 무엇이라도
그려질 수 있는 하얀 캔버스다

면 단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역할과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백을 의도적으로 만든다.
가득 채워야 옳다는 세상의 조류를 거스르기 때문에
여백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스르는 만큼의 힘이 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여백은 캔버스 속 요소들을 조명한다.

여백의 캔버스 위에서 모래알만큼 작은 점도
보일듯 말듯한 희미한 선도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생기며

생명력을 갖는다.

면 위에서 각각의 요소가 가진 고유한 존재감이 드러날 때
서로가 긴장과 울림을 주고 받는 하나의 살아있는 세계가 된다.

면은

탄생을 기다리는 점을 위해
더 멀리 뻗어 나갈 수 있는 선을 위해
그들과 함께 만들 새로운 그림을 위해
기꺼이 여백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면의 여정

면 단계가 성장하는 여정은 크게
전환, 지탱, 경작으로 볼 수 있다.



전환

나를 위한 활동을 넘어 모두를 위한
판에 대한 필요를 느끼며 면이라는
새로운 역할로 전환하는 단계



경작

개인의 성장이
곧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을 인지하고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문화를 만드는 단계



지탱

면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며
현실적인 어려움과 책임감의 무게를
감당하고 감내하는 단계



전환

시야, 위치, 역할이 전환되다

문화라는 판과 그 속의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야가 생긴다.
자신의 위치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인지하고
나를 위한 활동을 넘어 모두를 위한 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며
면의 역할로 전환하는 단계이다.

“내가 겪었던 경험을 활용해서
이제는 나의 후배들에게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내가 고민한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재밌는 형태의 장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가능한지 의심했던 친구들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나서는 멤버처럼 같이 꾸려가고 있고,
그들이 또 다른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른 작업의 장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신이 나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료나 같이 할 친구들이 진짜
없는 거예요. 지역에서 많은 문화기획자가 배출되면
좋겠고, 그분들이 포기하게 되는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조금이라도 움직여줘야 다음 오는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의적인 것 같지만, 저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일하기 위해서는 그런 동료들이 필요해서요.”



지탱

지탱해야 하는 현실의 무게를 견디다

하나의 면으로서 모두를 위한 판에 대해 고민한다.
자신의 지경을 넓혀 온 만큼,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도
다양해지고 고민도 깊어진다.
모두를 위한 삶을 지탱하며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책임의 무게를 견디는 단계이다.

“첨예하게 부딪힐 때도 많은데 결국 돈 때문인거죠. 자본. 제가 하는 미디어라는 매개를 유지하려면 투자해야 하고, 투자를 하려면 돈과 시간이 필요하고 돈과 시간을 벌려면 영혼을 파는 일을 해야 하고 계속 그 경계에서 흔들리는 거죠.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거기에 풍덩 빠지고요. 그 칼날 위에서 정신을 부여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건 결국 동료고, 지역사회인데 요즘 따라 연대라는 개념이 무겁고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부산 내에서 문화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만한 곳을 리스트업할 수는 있겠지만 실상을 보면 전전한 재정 상태를 가진 곳이 많지 않아요. 불안정성도 없애고 싶고, 개인의 성장도 놓치지 않고 싶은데 한편으론 일반 기업들도 못 해내는 미션들을 이 구조에서 어떻게 다 해결하나 싶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통과하고 남은 조직이 극소수겠지만 그렇게까지 한번 가보고 싶죠. 필요하다고도 생각하고요.”



경작

성장을 촉진하는 문화를 경작하다

개인의 성장이 결국 판을 확장하며
판의 확장은 더 많은 개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됨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면으로서 개인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촉진한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문화를 경작한다.

“부산에서 작업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 하나는 ‘이런 것 해보자’ 제안했을 때,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부산에선 이런 거 못해’ 하면서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부산에서 진행하는 여러 작업을 가서 보고, 이야기도 나누어보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기도 하고 있어요. 지역이라는 환경이 무언가를 만들고 이뤄내는 데에 문제점도 많죠. 그럼에도 묵묵하게 작업하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고,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도 많고요. 영도 여성 기획자 프로젝트 때도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먼저 그들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듣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앞선 세대들이 생기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함께 가는 크루들이 생기고 있고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저는 벌써 변화가 어느 정도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의 방백





55

함께 일했던 사람이 30, 40명 있었는데
지금 부산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섯 사람이 안 돼요.
일하면서 경험이 더 쌓이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데
시장이라는 것이 형성 안 되니까 각자 상황에 따라서
제 갈 길 찾아 떠나가는 상황을 10년째 보고 있죠.
새로운 선택을 앞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같이 함께 일해왔던 사람도 못 남겼고
지금 당장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56

55

지역에서 활동하려면, 지역에서 별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게 되지 않으니까 다시 서울로 취직하는 동료들이 너무 많았어요.
친구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지속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했는데 결국은 일거리더라고요. 이때 마침 부산에 사회적 경제
개념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나와 동료들이 지속할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했어요.

55

모래처럼

아무리 손에 쥐려고 해도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다

내가 조금 더 주먹을 꽉 쥐었다면

더 빨리 움켜잡았다면

보내지 않을 수 있었을까

썰물의 때를 보내며

할 수 있는 건 밀물의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파도 등쌀에 떠밀려 흔들거리는 것밖에 없어

모래가 떠오르는 날에는

마음이 가라앉는다

면의 시간

면 단계의 문화기획자가 만드는 장(場)은
점과 선이 어우러져 존재하는 하나의 고유한 그림이 된다.

그림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형태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면 단계는 그림을 통해 메시지를 만들고,
그 의미를 큐레이터처럼 해석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이 장(場)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점과 선의 상태, 위치, 모양을 읽으며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과 시대적 현상을 연결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여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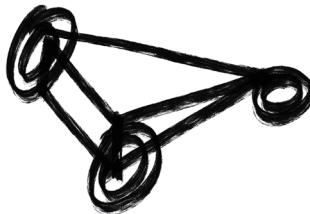


여백은 틈의 시간이다. 잠깐 멈추는 공백의 시간이다.

현장과 경험을 천천히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쉼을 통해 새로운 것을
그릴 수 있는 여백을 만든다. 잠시 숨을 고르는 쉼의 시간을 보낼 때,
좁아진 시야를 넓히고, 흐릿해진 관점을 정화한다.

“쉬는 것도 기획이 필요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나에게 자양분으로 남는 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없으면 진짜 임계점에 도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꺼내 쓸 것이 없는 느낌이랄까.
문화기획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여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또 다른 채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연대



연대는 느슨한 연합이다.

'문화라는 판은 함께 만들어가는 생태계'라는 면적인 세계관은 혼자서 개인이 지속하기란 쉽지 않다.

같은 세계관을 가진 면들이 연결될 때, 느슨한 연합이 생긴다.
각자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나누며 생태계에 풍성함을 더하고,
각자가 가진 관점을 교차하며 새로운 입체적인 관점을 갖게 한다.

“인터뷰하는 이 자리처럼 우리끼리 더 많이 모여야겠네요.
다른 주제와 영역이더라도 내가 고민했던 깊이만큼
고민한 사람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성찰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남이 나를 이해해주는, 해석이 일어나는
대화를 통해 얻는 회복과 쉼이 있어요.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공감과 신뢰가 생기고, 새로운 작당모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자연스럽게 생기니까요.”

상상



상상은 미래에 대한 갈망이다

상상력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판이 가진 한계를 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고안하는 방법이다.

원하는 미래를 상상함으로써 미래를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
전에 없던 구조를 개발하고, 더 많은 관계와 동료로서 연결되게 하고,
새로운 실험을 기꺼이 시도하게 한다.

“코로나로 2년 동안 여러 가지 접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버리며 지났지만, 그 안에서 또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앞으로도 또 다른 시대와 상황이 생기면, 그땐 이걸 해봐야지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죠.
‘이거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는데?’라는 상상을 하면
이뤄지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가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그게 이뤄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고, 거기서 또 작당모의를
하게 되죠.“

기획자의 말

문화기획자 진입 단계 분들을 위한 프로젝트
‘영도 기획자의 집’을 진행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문화기획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누구나 문화기획자가 될 수 있을까?
무엇이 성장이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번 연구는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연구 과정에는 ‘영도기획자의 집’ 졸업생,
자기 성장을 고민하는 영도문화도시센터의 크루들,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고민하는 앞선 현장 기획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지역에서 문화기획자들의 성장은 어떠한 과정인지,
그리고 무엇이 자신의 일을 지속하게 만드는지,
이 과정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개인의 성장을 넘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현장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성장의 과정은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때로는 혜매기도 합니다.
다음 점을 찍고, 선으로 돌파해나가는 당신의 성장 여정에서
이 책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딛게 해주는 이정표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점·선·면으로 보는 문화기획자의 성장

발행인 영도문화도시센터 고윤정

발행일 2022년 6월 3일

발행처 영도문화도시센터 글 안지혜 디자인 최예은

기획

영도문화도시센터	진저티프로젝트
고윤정, 한예리, 전소영	서현선, 강진향, 안지혜, 김승훈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로 27번길 8-8, 2	서울 마포구 양화로12길 8-5, 2
T. 051-418-1863 www.ydct.or.kr	www.gingertproject.co.kr

연구

인터뷰 참여

구태희, 김미양, 김보람, 김상아, 김설
박지선, 박진명, 윤도경, 이상명
이수정, 이지숙, 전현경, 최의덕, 한지연

설문조사 참여

2021 영도기획자의 집 수료생 52명

- 이 책은 영도문화도시센터 영도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이 책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영도문화도시센터와 진저티프로젝트가 공동소유하며,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책에 실린 내용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도문화도시센터, 진저티프로젝트

사람·자연·역사를 잇는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Art City Island
항구도시 부산의 역사적 발자취와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보고 영도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라는 비전 아래 영도의 역사·자연·생활 자산이 미래에도 가치 있는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영도의 문화력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도문화도시센터

'성장과 연결'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일상에 예술이 흐르는
예술의 도시, 도시문제를 문화로 완화하는 창의 도시,
시민과 함께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자치의 도시를 표방합니다.
문화도시 영도를 총괄하는 영도문화도시센터는
다양한 도시 정책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도시문화경영전문집단으로
영도가 명실상부한 '예술과 도시의 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